

古代 韓國의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

南 相 駿*

◀目	次▶
I. 緒 論	(1) 原始的 이동
(1) 研究 重點	(2) 強要 이동
(2) 研究 方法 및 제한점	(3) 強制 이동
II. 인구이동과 自然地理的 環境요소	1) 充 戶
(1) 山 地	2) 虜獲 및 安置
(2) 海 洋	3) 分散 및 기타
(3) 河川과 海岸	(4) 自由 이동
III. 인구이동 類型 및 영향 분석	IV. 結 論

I. 緒 論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가 移動性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人口移動으로 점철되어 있다.

인류는 결코 한 場所에만 拘束되어 있지 않아 왔으며¹⁾, 이동과 그에 수반되는 인구의 混合(mixing)은 인간의 地理的, 人口學的, 社會的, 經濟的 상호작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影響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구의 이동은 그 자체가 動的인 均衡過程으로서, 인구의 再分布를 결과하며, 인구의 이동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生活樣式의 傳播를 가능케하여 人文地理的 景觀의 變遷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古代史는 여러 학설로써 설명되고 있으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이동 관계로써 把握²⁾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이동을 일으킨 社會的 상황과

인구이동이 그 사회에 惹起한 변화 및 그 過程에서 작용한 自然地理的 環境要素들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은 한 지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示唆點을 줄 것으로 思料된다.

(1) 연구 宗旨

人口地理學은 自然的 環境, 人文的 環境, 人口 간의 복잡한 相互關聯性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相互關聯性의 설명과 분석은 人口地理學의 진정한 本體이다.³⁾

환언하면, 人口地理學은 인구의 分布, 構造, 移動, 그리고 成長의 空間的 變化 및 이들이 場所의 성격과 관련하는 樣式의 분석에 主要點을 두어야 한다.⁴⁾

여기에서 人口學 자체의 연구영역 분류에 관한 論議를 살펴 보려 한다.

P.M. Hauser와 O.D. Duncan은 人口에 관한 연구를 人口分析(demographic analysis)과 人口研究(population studies)로 나누었는데, 人口分析은 人口의 量과 그 변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

* 韓國教育開發院

1) Jordan, T.G., Brown, L.R., 1982, *The Human Mosaic: A Thematic Approach to Cultural Geography*, Harper & Row, San Francisco, p.46.

2) 洪思媛, 金思憲, 1979, 韓國 海外移民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서울, p.24.

3) Clarke, J.I., 1972,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Press, Oxford, p.2.

4) Clarke, J.I., 1971, *Population Geography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Pergamon Press, Oxford, p. 1.

구에 국한되며, 人口研究는 인구변동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生物的, 遺傳的, 地理的 및 기타의 諸 變數들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縮稔」은 인구에 관한 연구를 人口現象 分析의 통계방법을 연구하는 形式人口學(formal demography)과 인구현상의 실제적 설명을 연구하는 實體人口學(substantial demography)으로 구분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人口地理學은 Hauser와 Duncan의 人口研究, 또는 「縮念」의 實體人口學의 영역에 관한 地理學의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古代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 채택한 접근방법은 대부분 定量的인 分析에 많은 제한점을 갖는다.

특히 인구이동은 측정하기에 곤란한 인구의 특성이다. 따라서 歷史的인 인구연구에 있어서 인구이동은 연구대상이 되기보다는 연구에의 장애물이 되어 왔다.⁶⁾

원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는 移動의 原因 持續期間, 距離, 方向, 量, 速度, 選擇性, 그리고 극단적인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分類에 어려움⁷⁾이 있는데 여기에 古代라는 時代性이 부가된다면, 더욱 연구에 곤란이 수반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人口移動을 社會的 移動(social mobility), 즉 階層移動과 地域的 移動(migration)으로 나누는데 본 연구에서는 地域的 移動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統一新羅 末期까지의 古代 韓國의 인구이동을, 인구이동 연구의 3가지 주요 이슈(issue)인 이동의 原因, 性格, 그리고 影響⁸⁾에 대해서, 人口現象에 의해 형성되는 場所의 地理的 特性, 場所의 地理的 特性에 의해 형

성되는 人口現象의 樣式이라는 人口地理學의 觀點⁹⁾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古代 한국의 인구이동에 관한 國內에서의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으며, 歷史學의 분야에 의해 이루어졌다. 外國에서 古代 한국의 인구이동에 관해 수행한 연구는 물론 없다.

國內에서의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한 시대의 史實을 深度있게 구명하는데 초점이 있었으며, 外國에서의 人口移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法則化 및 類型化에 강조점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인구이동 자체가, 최근의 것을 제외하고는 흔히 規模와 影響을 數量化하기 곤란하고, 간단한 패턴을 따르지 않거나, 엄격한 法則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¹⁰⁾에 어떤 경우에 한정된 특수한 이동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를 包括하는 一般的인 法則이나 規則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¹¹⁾

과거의 人口地理學은 人口現象에 관한 空間的 生態的 접근에 편향되었으나, 최근에는 數量化, 電算化, 모델化, 過程에 관한 연구, 行爲에 관한 연구, 應用的 측면 연구, 이데올로기적 측면 연구의 경향¹²⁾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人口의 空間的 패턴을 創造, 修正하는 「過程」과, 移動要因에 관한 社會心理學의 측면에서의 「行爲」에 관한 측면이 본 연구와 관련이 깊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既述한 연구중점과 方法論상의 제한점을 감안하여 W. Petersen의 類型論(typology)을 채택하고 類型別 史例는 記述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선

5) 尹鍾周, 1973, 人口學, 한일문고, 서울, pp.28~29에서 재인용.

6) Drake, M., 1972, "Perspectives in historical demography," *The Structure of Human Popu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p.70.

7) Clarke, (1972), op. cit., p.130.

8) Kammeyer, K.C.W., 1971, *An Introduction to Population*, Chandler, San Francisco, p.54.

9) Zelinsky, W., 1966, *A Prologue to Population Geograph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p.5.

10) Harrison, G.A., Boyce, A.J., 1972, "Migration, exchange, and the genetic structure of populations," *The Structure of Human Popu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p.130.

11) Davis, K., 1949, *Human Society*, Macmillan, N.Y., pp.586~587.

12) Jones, H.R., 1981, *A Population Geography*, Harper & Row, N.Y., pp.2~13.

정하였다.

그리고 已往의 類型論이 一般化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인 用語의 統一¹³⁾을 위해서 移動의 개념을 하나의 政治的 혹은 地理的 單元에서 다른 單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무르기 위해 個人 혹은 集團이 이동한 移住(migration)¹⁴⁾에 국한하기로 했다.

II. 人口移動과 自然地理的 環境要素

古代에는 交通과 通信의 발달이 매우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自然地理的 環境要素가 人口移動의 量, 方向, 季節性, 選擇性, 距離, 速度 등에 미친 영향이 그 이후의 시대에 비해 至大하였으리라는 점이 분명하다.

어떤 地域의 自然地理的 環境要素들은 移動契機와 移動機會의 地理的 分布라는 要因으로 變形되어 人口移動의 基底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文化的 地理的 分布가 住民들간의 communication pattern과 그 communication을 곤란하게 하는 自然的 障壁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¹⁵⁾는 점과, 文化的 전파는 어떤 형태이든지 인구의 이동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아래에서는 山脈, 高原, 溪谷, 嶺, 海岸低地帶 등 山地와 관련된 요소, 季節風, 海流, 섬, 海峽 등 海洋과 관련된 요소 및 海岸, 河川 등의 諸要素가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을 史例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山 地

山地가 고대의 인구이동에 대해 발휘한 第一義的 역할은 分離機能에 의한 이동의 制限이었다.

人口를 일종의 流體라고 보면, 그 이동(흐름)

의 方向은 自然力에 의한 抵抗이 가장 작은 線을 따를 것이다. 이러한 自然力에 의한 抵抗은 주로 山地 때문이었음이 역사적으로 著聞된 史實에서 나타난다.

貝塚의 密集地帶인 釜山 東三洞의 경우 黑曜石으로 만든 石刀와 다수의 無文土器 및 약간의 櫛文土器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이 羅南, 茂山에서 발견된 遺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咸鏡北道에 살고 있던 無文土器 시대의 인류가 東海岸을 따라 南下하여 釜山地方의 海岸에 定着한 것으로 추정¹⁶⁾된다는 점에서 南北방향의 太白山脈이 발휘한 方向의 제한을 알 수 있다.

三國 중에서 新羅의 鐵器文化 受容이 제일 늦었고 國家體制의 정비가 늦었던 것은 北, 西쪽을 가로막고 있는 小白山脈이 大陸으로부터 波紋져 오는 民族移動(鐵器文化)을 막았었기 때문¹⁷⁾이었다.

咸鏡道와 江原道 嶺東地方이 平安道地方보다 金屬文化的 流入이 적어도 수세기 늦었다는 것은 각각 狼林山脈, 蓋馬高原, 咸鏡山脈과 太白山脈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추정된다.

山地는 이처럼 그 高度와 方向으로써 古代 韓國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山地는 그 안에 內包하고 있는 溪谷, 嶺, 海岸低地帶 등 孔道¹⁸⁾로써 인구이동의 通路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嶺의 孔道로서의 有用性은 海拔高度 및 嶺 양쪽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高度, 일년 중 積雪期間의 長短, 地形의 險峻정도, 혹은 餘他的 困難, 嶺 양쪽 지역의 性格 등에 의해 결정된다. 嶺이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人口集團을 연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嶺들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¹⁹⁾

溪谷은 山地를 貫通하는 通路나 居住地帶이며, 때로는 道路이고, 때로는 막다른 곳(culs-de-sac)

13) Clarke, (1971), op. cit., pp. 130~131.

14) Ross, J.A. et al. (eds.), 1982,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pulation*, Vol. II, The Free Press, N.Y., p. 448.

15) Beals, R.L., Hoijer, H., Beals, A.R., 1977,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Macmillan, N.Y., p. 613.

16) 吳洪哲, 1980, 聚落地理學, 敎學社, 서울, p. 90.

17)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1, 韓國史, 第2卷(古代: 民族의 成長), 探求堂, 서울, pp. 275~276.

18) 孔道란 通路로 이용되는 地形을 意味한다.

19) Freeman, O.W., Raup, H.F., 1949, *Essentials of Geography*, McGraw-Hill, N.Y., p. 239.

이다.²⁰⁾

중국의 戰國時代에 사용되었던 明刀錢이 우리나라에서 出土된 지역은 平北 渭原郡 崇正面 誌洞, 江界郡 前川面 仲岩洞 仲興站, 江界郡 化京面 吉多洞 麻仙山, 寧邊郡 梧里面 細竹里, 寧邊郡 南荃峴面 都館洞, 平南 寧邊郡 溫和面 溫陽里²¹⁾이며, 이 지역들은 모두 狼林山脈의 西麓에 위치한다.

중국의 北邊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銅·鐵 混合文化를 가지고 陸路로 東移하면서 당시의 화폐이던 明刀錢을 곳곳에 남긴 것²²⁾이라고 본다면, 위의 出土地域을 중국 東北地方에서의 出土地域인 熱河省, 奉天省 등지와 연결하여 고려할 때 중국의 東北地方→鴨綠江 中流流域→禿魯江, 渭原川, 清川江의 支流들이 狼林山脈의 西麓에 형성한 溪谷을 따라서, 현재의 滿浦線 철도와 거의 비슷한 經路를 移動路로서 추정할 수 있다.

明刀錢을 文化的 한 요소라고 한다면 F. Ratzel의 「地理的方法(geographische methode)」²³⁾에 의해서 위의 經路를 人口의 移動通路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通溝地方의 扶餘族勢力이 新興勢力에 밀려 咸興平野로 이동하여 東扶餘를 이루었던 史實²⁴⁾도 通溝↔咸興平野 사이에 一大孔道²⁵⁾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孔道는 通溝→鴨綠江 流域(滿浦)→江界→아득령(1,479m)→長津江→赴戰江의 溪谷→赴戰嶺(1,445m), 黃草嶺(1,200m)→咸興平野

로 추정할 수 있다.

漢四郡 중 臨屯郡은 위 孔道의 존재를 前提해야만 設置, 經營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新羅의 眞興王이 巡守碑를 咸興과 利原에까지 設置할 수 있었던 것과, 후세의 朝鮮朝 초기에 慶尙道에서 咸鏡道로 徙民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太白山脈이 南北방향이었다는 점과 함께 太白山脈과 해안 사이에 狹한 通路가 있다는 점으로써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26) 27)}

이외에도 百濟를 빈번히 침공하였던 三國史記에 靺鞨族이라 記述되어 전하는 족속이 그 침공 通路로서 楸嶺 構造谷을 이용²⁸⁾하였음은 당시 靺鞨族의 영역이었던 함경도 지방에서 百濟의 영역이었던 京畿道, 嶺西地方을 연결하는 自然的인 通路로서의 楸嶺 構造谷의 有用性을 示唆한다.

(2) 海 洋

造船·航海術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던 古代에 海洋은 거리로써 뿐만 아니라 航海의 위험으로써 人口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海洋은 人口이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간단한 배나 뗏목을 타고 意識的으로 또는 우연한 漂流에 의하여 이동하는데 편리한 通路가 되었던 것이다.²⁹⁾

自然地理的 要素는 아니지만, 古代 韓國의 造船·航海術은 3,000B.C까지 소급되는 세계 7대 發生地域의 하나³⁰⁾로서, 後期 舊石器 時代に 이

20) Clarke, (1972), op. cit., p. 19.

21) 震檀學會 編, 1959, 韓國史, 第1卷(古代), 乙酉文化社, 서울, p. 50., 劉鳳榮, 1976, “韓·中間의 古代 陸上交通”, 白山學報, 第20號, p. 276.

22)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 概說, 一志社, 서울, p. 100.

23) 李光奎, 1977, 文化人類學, 一潮閣, 서울, p. 202. “F. Ratzel은 文化的 이동이란 民族이 이동한 것이지 일부 文化要素만의 借用이나 傳播은 아니라고 보고……文化要素의 分布를 精確하고, 광범위하게 추적하여 이를 地圖上에 기입하여 전파의 經路를 추정하는 地理的方法을 사용하였다.”

24) 金富軾(李丙熙 校譯), 1977,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서울, 高句麗 本紀 東明聖王條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曰迦葉原, 土壤膏腴宜五穀, 可都也, 阿蘭弗遂勸王, 移都於此, 國號東扶餘.”

25) 李弘植, 1959, “高句麗의 興期(2)”, 國史上的 諸問題, 第5輯, pp. 9~10.

26) 李弘植, 1959, “新羅의 發興起”, 國史上的 諸問題, 第3輯, pp. 15~16.

27) 李仁榮, 1954, 韓國 滿洲關係史의 研究, 韓國文化叢書 第13輯, 乙酉文化社, 서울, p. 163. “조선조 초기에 경상도로부터 함경도로의 地理的 移住 경로로서 대략 세 길을 추정할 수 있는데…… 其二是 경상도 북부→강원도 동부해안지방→함경도로서 이는 地理的 또는 方言分布上으로 보아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경로이다.”

28) 梁泰鎮, 1979, “韓國의 疆域”, 韓國國境領土關係文獻集, 甲子文化社, 서울, pp. 260~261.

29) 金廷鶴, 1964, “韓國民族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I(民族·國家史), p. 326.

30) Spencer, J.E., Thomas, Jr., L., 1969, *Cultural Geography: An Evolutionary Introduction to Our Humanized Earth*, John Wiley & Sons, N.Y., p. 199.

미 石壯里에서 뱃목을 엮었을 가능성³¹⁾, 沃沮人 이 이미 사용했을 것으로 推知되고 있는 構造船³²⁾, 櫛文土器 시대에 延平島, 黑山島 등 원거리 島嶼로의 진출³³⁾, 新羅에서 日本에 우수한 船匠을 파견했던 史實, 三國 水軍의 활약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에 達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海洋과 관련된 自然地理的 환경요소로서 人口移動과 연관되는 것은 季節風, 섬, 海流, 海峽 등이 있다.

법선항해 시대에 季節風은 매우 중요한 航海條件 중의 하나였다. 新羅의 對中國(南朝) 朝貢貿易時 黑山島에서 季節風을 이용하여 5~6일 후 楊州江口의 國際港 楊州와 明州에 도착³⁴⁾ 하였던 것은 新羅人들이 季節風에 대한 지식이 풍부³⁵⁾했던 점을 말한다.

계절풍이 인구가동에 보다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海流와의 結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古代文化의 특질 중 이른바 南方文化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는 반드시 계절풍과 해류의 역할이 云謂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南方文化의 要素가 우리나라로 北上하는 데에는 季節風과 黑潮海流가 큰 역할을 했다³⁶⁾는 것이다.

섬은 일종의 僥倖通路³⁷⁾로서 혹은 일종의 중간 據點으로서 이용되었을 것이다. 韓·中間에는 遼東半島와 山東半島 사이의 廟戶諸島와 黑山島, 韓·日間에는 對馬島, 壹岐島, 平戶島 등의 섬들이 마치 징검다리과 같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海峽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陸橋와 같은 역할

을 충분히 해왔으며, skeletal remains와 遺物 등에 의해 증명³⁸⁾된다.

東海로 들어오는 對馬海流는 對馬島 부근에서 제 1, 2支流로 갈라지며, 第2支流에서 다시 東韓暖流가 갈라져 나오게 된다.³⁹⁾ 東韓暖流는 한국의 沿岸에서 5~30km 떨어진 지점을 따라 연중 北上⁴⁰⁾하다가 竹邊 부근에서 東쪽으로 流向을 바꾸어 흐르며, 鬱陵島 부근에서는 東回轉하는 흐름을 형성한다. 이 東韓暖流는 最大流速이 1.4knot⁴¹⁾에 달하여 현재도 항해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日本列島에 降臨하여 國神(原住民)系를 지배했다는 天神(外來民)系 가운데서도 「出雲」(島根地域)과 「筑紫」의 2大 계열이 있는 것은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바이다. 그리고 筑紫系 天孫族의 出發地點이 한반도 東南端의 金海地域이었다는 것은 天孫降臨說話만 가지고도 거의 分明하다.⁴²⁾

위의 出雲, 筑紫 계열의 外來民이 韓半島에서 渡海할 때 出雲地域으로는 東韓海流가, 筑紫地域으로는 對馬島, 壹岐島로 이어지는 섬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

(3) 河川과 海岸

海岸은 多樣하고 不均等한 人口誘引力을 가지고 있다.⁴³⁾ 즉, 해안은 일반적으로는 人口를 誘引한다고 보여지나, 時代와 場所에 따라서는 誘引力을 잃고 오히려 忌避되기도 하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三國 중 특히 新羅에 倭冠의 피

31) 朴喜顯, 1975, “韓國 後期舊石器時代의 生活環境”, 白山學報, 第18號, p. 112.

32) 朴九乘, 1968, “韓國漁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Ⅲ(科學·技術史), p. 84.

33) 國史編纂委員會編, 1981, 韓國史, 第3卷(古代: 民族의 統一), 探求堂, 서울, p. 507.

34)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3卷, 前揭書, p. 507.

35) 金儀遠, 1984, 國土履歷書, 每日經濟新聞社, 서울, pp. 86~87.

36) 建設部, 國立地理院, 1980, 韓國地誌(總論), 地誌編纂委員會, 서울, p. 23.

37) Raup, D.M., Stanley, S.M. (梁承榮 譯), 1980, 古生物學原理, 大學教材出版社, 서울, pp. 404~406.

38) Dicken, S.N., Pitts, F.R., 1970,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A Study of Man and His Environment*, Gin and Company, Waltham, p. 38.

39) 國立水產振興院, 1979, 韓國海洋便覽, 藝文社, 서울, pp. 59~60.

40) 下相慶 外, 1983, 東海海水循環과 그 產業的 應用價值에 關한 研究, 韓國科學技術院 海洋研究所, 서울, p. 63, 74.

41) 金光植 外, 1973, 韓國의 氣候, 一志社, 서울, pp. 237~238.

42) 尹錫曉, 1984, “伽倻의 倭地進出에 關한 一研究”, 白山學報, 第28號, p. 62.

43) Clarke, (1972), op. cit., p. 16.

해가 심하여, 海岸地方의 인구가 빈번히 抄掠 당했으며 이를 防備하기 위해 沿岸 要地에 築城한 記事를 누차 읽을 수 있다.

海岸에 誘引된 人口를 가졌었을 때 內陸으로의 진출에는 河川이 큰 역할을 하였다. 河川은 海岸보다 좀 더 明瞭한 人口이동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다.

人類의 歷史地理의 많은 부분이 물이 풍부한 지역(well-watered areas)을 탐색, 쟁취하는 과정⁴⁴⁾임이 先史時代 우리나라 聚落의 分布가 淺水灣, 廣梁灣 등의 해안과 鴨綠江, 大同江, 漢江, 豆滿江 등의 河岸에 한정된 立地上의 공통점⁴⁵⁾의 배경인 것이다.

古代의 河川은 移動通路의 제공, 飲料水, 漁勞 혹은 農業에의 適地를 제공했다.

移動通路로서의 역할은 新石器 시대의 유적지인 岩寺洞에서 漢江을 利用해 西海岸 주민들과 접촉을 가졌다는 증거인 鱸水産 조개들이 발견⁴⁶⁾되고 있는 점에서 示唆되며, 高句麗 琉璃王代에 都邑을 옮긴 것은 漁勞의 適地에로의 이동⁴⁷⁾이었다.

인구이동에 대한 하천의 誘引力이 慣性的으로 持續될 때에는 河川을 중심으로 人口의 集積에 의한 聚落의 發達까지를 초래했다. 新羅가 三國統一後 시도한 行政區域 改編의 中心聚落은 九州(現地名:尙州, 梁山, 晉州, 廣州, 春川, 公州, 江陵, 全州, 光州)와 五小京(現地名:金海, 忠州, 原州, 淸州, 南原)이었다.

이 중 江陵을 제외하면 모두가 洛東江, 漢江, 錦江, 鎭津江, 滿項江 등 諸河川의 水系網을 따라 발달된 盆地에 공통적으로 立地하고 있다.⁴⁸⁾

盆地地形은 원래 外敵의 방어에 유리하여 軍事, 統治의 要地로서 人口集積에 유리한 自然的 기반을 제공하지만, 海岸에서 內陸으로 進行된 古代 한국의 居住空間 擴散過程에 있어서 人口

移動의 縱河性에 의한 영향도 컸으리라고 보일진다.

Ⅲ. 人口移動 類型 및 影響 分析

인구의 이동은 出發地와 終着地 및 이동과정에 포함되는 지역에 人口學的인것 이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즉 인구이동은 단순한 수의 增減뿐만 아니라,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生活樣式으로써 특히 終着地의 人文地理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의 중점은 그 原因, 形態와 함께 影響에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매우 複合的인 行爲로서 단순한 一般化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包括的인 Petersen의 類型論(typology)을 골격으로 하여 古代 한국의 인구이동의 原因과 形態를 고찰하고, 이에 수반된 영향에 대해서 人文地理의 變化와 關連한 構造的 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Petersen은 原因과 形態를 결합한 기준을 채택하여 인구이동을 5類型으로 나누었다. 첫째, 生態的인 힘에 의한 原始的 移動(primitive migration), 둘째, 國家와 個人의 관계에 기초한 強要移動(impelled migration), 셋째, 國家의 政策에 의한 強制移動(forced migration), 넷째, 個人의 意志에 의한 自由移動(free migration), 다섯째, 社會的 契機에 의한 大衆移動(mass migration)⁴⁹⁾이다.

물론 위 類型論 외에도 Davis가 國際的 이동에 限하여 排除(displacement), 征服(conquest), 強制勞動(forced labor), 自由個人移動(free individual migration), 管理移動(controlled migration)으로 구분⁵⁰⁾한 것, H.P. Fairchild가 인구이동을 人種의 形成(race formation)과 移住(migration)로 나누고, 移住를 다시 分散(dispersion), 侵入

44) Blij, H.J. de, 1981, *Geography: Region and Concepts*, John Wiley & Sons, N.Y., p. 14.

45) 吳洪哲, 前揭書, p. 88.

46)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1卷, 前揭書, p. 99.

4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琉璃王 21~22年條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產,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

48) 吳洪哲, 前揭書, p. 99.

49) Peterson, W., 1964, *The Politics of Population*, Doubleday, Gloucester, pp. 271~290.

50) Davis, op. cit., pp. 588~591.

(invasion), 征服(conquest), 植民(colonization), 移出(emigration)으로 나눈 유형론⁵¹⁾이 있다.

그러나 Davis는 國際的 이동에 한정된 점, Fairchild는 移住부분을 지나치게 政治的인 관점에서 細分한 점 때문에 적용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Petersen의 유형론은 古代에서부터 現代에 이르는 모든 時代의 인구이동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나, 時代에 따라 多少의 添削이 요구된다. 즉, 古代에는 大衆移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Petersen의 類型論 중 大衆移動을 제외한 原始的, 強要, 強制, 自由移動 등 4개 類型에 국한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1) 原始的 移動

原始的 移動은 自然의 힘에 대처할 能力의 不在에 基因한다. 既存의 자연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調節하거나 혹은 그것에 適應할 能力을 지니지 못한 인구가 生態的인 압력에 밀려 이동하게 되는 경우이다.

古代 한국의 원시적 이동은 氣候(氣象)의 변동과 관련된다. 흔히 文化的 適應力은 人間으로 하여금 精神的 능력과 숙련된 技術으로써 生態學的인 큰 변화에 대해 調整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문화적 적응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단계의 古代 韓半島人들에게 自然環境의 변동은 生態學的인 압력으로 作用하게 되었다.

農業을 生業으로 삼던 시대에 기후의 변동은 土地의 生産力과 被扶養人口間に 현저한 不調化를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부조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구의 이동은 당연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自然災害에 의해서 일어난 饑饉이 原始的의 이동의 대표적 계기라 할 수 있다.

三國史記 初期의 내용에는 自然災害에 관한 記事가 풍부하게 보이는데, 農業과 관련이 깊은 것은 旱魃, 洪水, 바람(颱風 혹은 暴風), 우박, 안개, 서리, 눈이다.

총 63회에 달하는 三國史記의 饑饉을 原因別로 살펴보면, 大水 4회, 旱이 35회, 不雨 8회, 霜害

5회, 大水 4회, 雪害 2회, 기타 6회, 蝗害 3회이다.⁵²⁾

饑饉時에 食料를 구하려는 원시적 이동은 三國史記의 高句麗本紀 文咨王 8年條의 “百濟民饑 二千人來投”, 百濟本紀 溫祚王 37年條의 “夏四月旱, 至六月乃雨, 漢水西北部落民饑, 亡入高句麗者, 一千餘戶, 浪帶之間空無居人” 등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이웃나라로 亡入, 來投하거나, 심지어 新羅本紀 憲德王 8年條의 “年荒民飢, 抵浙東求食者, 一百七十人”, 新羅本紀 伐休尼師今 10年條 “倭人大饑, 來求食者千餘人” 등 新羅人이 중국(唐)으로, 倭人이 新羅로 食糧을 구하기 위해 이동했던 기록으로 나타난다.

이외에 이동의 기록은 없으나 饑饉때문에 食料를 팔아서 연명하거나 혹은 人肉으로써 延命한 정도의 상황에 대한 記事들이 많이 있는 바, 많은 인구가 求食을 위해서 혹은 流民이나 草賊으로서 흘러 다녔을 것이다.

한편, 좀 더 시대를 遡及하여 보면, 海水面의 변동에 의한 水陸分布의 變動이 야기한 원시적 이동도 想定할 수 있으나 제외하였다.

(2) 強要移動

強要移動은 移動의 主體인 個人 혹은 集團이 이동 與否를 결정할 권리를 어느 정도 소유했다는 점에서 後述할 強制移動과 다르다.

強要·強制移動은 古代 한국의 역사 展開過程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한 捕虜, 亡國流(遺)民, 政治·社會的 被壓迫 集團, 反逆集團 등과 관련된 유형이다.

三國史記의 인구이동 史例 중에서 빈도가 제일 높으며, 포함된 인구의 規模도 가장 크다. 따라서 強要·強制移動은 原因, 形態, 그리고 影響에 있어서 人文地理와의 관련도 현저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검토되어야 할 것은 地域의 人口移動과 社會變化 現象과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社會科學에서는 人口의 水平的(地域的) 移動은 이동인구의 社會的 地位의 變化를 초래한다고 보다는 단순히 地域的 位置를 바꾸는 것이며, 기껏해야 機能面의 變化가 있는 정도이기

51) 尹鍾周, 前揭書, p. 314에서 再引用.

52) 金蓮玉, 1983, “韓國 古代의 氣候環境”,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石泉 李燦博士 華甲紀念論集), p. 242.

때문에 社會變化 現象이라고 보지 않는 견해⁵³⁾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強要·強制移動은 이동인구의 機能은 물론 社會的 地位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일종의 사회변화 현상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朝鮮相 歷谿卿이 王과의 갈등을 피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辰國으로 移動했다는 魏略의 記事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⁵⁴⁾의 辰國을 辰韓으로 본다면 이들이 慶州地方으로 流入하였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높은 추정⁵⁵⁾으로서 三國史記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條의 “先是，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이라는 記事와 부합되는 것이다. 이 기사는 또한 衛滿朝鮮의 건국에 따라 古朝鮮 末王인 準王과 그 揮下 勢力이 南쪽으로 이동했던 史實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條의 “百濟始祖溫祚王，其父鄒牟，或云朱蒙，自北扶餘逃難，至卒本扶餘……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百姓從之者多，遂至漢山”이라는 기사는 정치적, 사회적 被壓迫 集團이 強要移動하여 高句麗와 百濟를 건설한 史例를 말한다.

이외에도 三國史記에는 降, 來降, 投, 來投, 奔, 奔降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강요이동의 史例가 新羅本紀에 4번, 百濟本紀에 1번, 高句麗本紀에 6번 나타나 있으며, 그 記事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新羅本紀

赫居世居西干	19年條	下韓以國來降
儒理尼師今	14年條	高句麗王無恤，襲樂浪滅之，其國人五千來投
婆娑尼師今	23年條	以兵伐音汁伐國，其主與衆自降，悉直·押督二國王來降

法興王	19年條	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以國帑寶物來降
百濟本紀		
近肖古王	28年條	秃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高句麗本紀		
閔中王	4年條	鬻友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詣樂浪投漢
故國川王	1年條	拔奇怒爲兄而不得立，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公孫康降
故國川王	19年條	中國大亂，漢人避亂來投者甚多
長壽王	59年條	民奴各等，奔降於魏
文咨王	3年條	扶餘王及妻孥，以國來降
寶藏王	27年條	王之庶子安勝，率四千餘戶投新羅

三國의 古代國家로서의 체제정립 과정, 三國의 統一 및 이후의 歷史過程에서는 海外로 強要移動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三國統一 後 新羅가 麗·濟의 遺民들을 安撫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실시했으나 상당수의 遺民들이 政治, 社會的인 갈등을 피해 이동했다.

高句麗의 遺民들은 주로 靺鞨, 突厥, 新羅 또는 日本으로 망명⁵⁶⁾하였고 百濟의 遺民은 建國初期부터 관련이 깊었던 日本으로의 이동이 主流를 이루었다. 그들은 대부분 잘 組織된 集團을 이루어 건너 갔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비교적 後進社會였던 日本에 소중한 여러가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貴族들 사이에서 높은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다.⁵⁷⁾

日本 上代の 史書인 「六國史」에는 歸化의 기

53) 黃性模, 1975, 一般社會學, 大旺社, 서울, p. 157.

54)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2卷, 前揭書, p. 75. 에서 再引用.

55) 高承濟, 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서울, p. 65.

56) 金鎮畧, 1984, “唐代 涇渭蕃鎮 李師道에 대하여”, 素軒南都永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p. 758.

57) Reischauer, E.O., Fairbank, J.K., Craig, A.M. (全海宗, 閔斗基 譯), 1976, 東洋文化史(上), 乙酉文化社, 서울, p. 602.

록이 약 40회 보이는데 그 대부분은 高句麗, 百濟, 新羅에서의 渡去人으로서, 渡去의 理由로는 주로 政治的 不安⁵⁸⁾을 들고 있는 점이 강요된 이동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하여, 日本史書에 따르면, 部民으로서 集團的으로 畿內地方에 정착한 이들 歸化人의 部로는 史部, 蠶飼部, 吳服部, 陶部, 鍛冶部, 綿織部, 韜部, 藏部 등의 文筆, 技術 分野가 있었으며, 堤防, 水利, 酒造, 造船術도 韓半島에서 渡去한 사람들에 의해 傳授⁵⁹⁾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強制移動

移動者 혹은 이동집단의 意志가 완전히 排除되고 전적으로 他意에 의한 強制移動은 다시 一時的 強制移動과 永久的 強制移動으로 나누어진다.

一時的 強制移動은 防戍, 城·宮·都邑·堤防의 築造, 修理 또는 戰略의 일환으로서 일일이 例舉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대체로 해당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人口學的 변화 외에 다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비하여, 永久的인 強制移動은 疆域開拓을 위한 「充戶」, 捕虜의 虜獲 및 捕虜, 反逆者, 亡國流(遺)民, 歸順者의 「安置」, 地方의 세력중심지 형성을 저지하기 위한 「分散」 등의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人口學的 變化는 물론 人文地理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까지 그 影響이 다소 殘存하고 있기도 하다.

1) 充戶

充戶 類型的 강제이동은 국가의 邊境 혹은 새로 開拓할 지역에 屯田兵의 성격의 인구를 徙民시켜 守備와 동시에 領域의 開拓, 確保를 꾀하려는 것이다.

新羅 下代의 禮成江 以北 地域 개척을 위한 充戶는 黃海道 대부분과 平安南道 일부지역에 築城, 郡縣 設置를 통한 國土開發의 노력이었다. 聖德王代부터 憲德王代까지 걸쳐 이루어진 이 사업이 해당지역의 原主民은 물론 徙民되어 온 인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임은 三國史記 新

羅本紀 宣德王 3年條 “王巡幸漢山州, 移民戶於 浪江鎮”의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三民史記에 나타난 充戶 性格의 강요이동은 史例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新城의 築造, 修葺 후에는 반드시 人戶를 옮겨 充實히 했던 다음의 記事들로 시사된다.

新羅本紀

儒禮尼師今	10年條	改築沙道城, 移沙伐州豪民八十餘家.
智證麻立干	15年條	置小京於阿戶村, 徙六部及南地人戶充實之.

高句麗本紀

東川王	21年條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廣開土王	18年條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百濟本紀

溫祚王	13年條	就漢山下立柵, 移慰禮城民戶.
溫祚王	14年條	築城漢江西北, 分漢城民
溫祚王	36年條	築湯井城, 分大豆城戶居之.
肖古王	45年條	築赤岬·沙道二城, 移東部民戶.
文周王	2年條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列傳

弓裔	8年條	移青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	-----	------------------

위의 充戶 史例은 모두 人戶를 “移”, “徙”, “分”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강제된 이동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위에 나타난 新羅 2회, 高句麗 2회, 百濟 5회 외에도 단지 築城의 記事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에 따른 記錄되지 않은 強制移動도 想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2) 虜獲과 安置

58) 全海宗, 1972, “歸化에 對한 小考”, 白山學報, 第13號, pp. 18~20.

59) 閔斗基 編著, 1976, 日本의 歷史, 知識產業社, 서울, p. 13.

古代 韓國을 점철한 政治, 社會的 變動과정에서는 捕虜의 虜獲이 매우 빈번했으며, 捕虜와 亡國遺民, 反逆集團, 歸化人들은 대부분 일정한 곳에 集團的으로 安置되었다.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古代史는 人口와 領土를 확보하기 위한 隣接國과의 투쟁으로 연속되어 있다.

古朝鮮 準王이 北中國으로부터 흘러들어 온 수만인의 流亡民을 漢과의 緩衝地帶인 大同江—清川江의 사이(혹은 博川—鴨綠江의 사이)라고 여겨지는 空地에 安置⁶⁰시켰던 史例, 1,500인의 樂浪(漢)人을 捕虜로 虜獲하여 勞役に 종사⁶¹케 하였던 辰韓의 史例는 最古의 史實이다.

이외에 三國史記에는 新羅本紀에 21회, 百濟本紀에 13회, 高句麗本紀에 20회의 虜獲·安置 史例가 보인다.

다음은 해당 記事의 內容을 제시한 것이다.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14年條	高句麗王無恤, 襲樂浪滅之, 其國人五千來投, 分居六部.
脫解尼師今	21年條	阿湊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婆娑尼師今	25年條	悉直叛, 發兵討平之, 徙其餘衆於南鄙.
阿達羅尼師今	14年條	百濟襲破國西二城, 虜獲民口一千而去, ……百濟大懼還其所掠男女, 乞和
奈解尼師今	14年條	捕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助賁尼師今	7年條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宅·田莊安之.
儒禮尼師今	4年條	倭人襲一禮部, 縱火燒之, 虜人一千而去.
訖解尼師今	37年條	倭兵猝至風島, 抄掠邊戶
奈勿尼師今	18年條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實聖尼師今	6年條	倭人侵東邊, 夏六月, 又侵南邊, 奪掠一百人.
訥祗麻立干	24年條	倭人侵南邊, 掠取生口而去.
慈悲麻立干	5年條	倭人襲破活開城, 虜人一千而去.
眞興王	23年條	百濟侵掠邊戶, 王出師拒之, 殺獲一千餘人.
眞平王	30年條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眞平王	49年條	百濟將軍沙乞拔西鄙二城, 虜男女三百餘口.
武列王	7年條	定方以百濟王及王族·臣寮九十三人·百姓一萬二千人, 自泗泚, 乘船廻唐.
文武王	6年條	高句麗貴臣淵淨土, 以城十二, 戶七百六十三, 口三千五百四十三, 來投, 淨土及從官二十四人, 給衣·物量料·家舍.
文武王	8年條	高句麗王, 先遣泉男產等, 詣英公請降, 於是, 英公以王寶藏·王子福男·德男·大臣等二十餘萬口, 廻唐, ……王以所虜高句麗人七千入京.
文武王	10年條	(安勝 등의 高句麗 遺民 들을) 王處之國西金馬渚, ……品日, 文忠, 衆臣, 義官, 天官等攻取城六十三, 徙其人於內地.
神文王	4年條	安勝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 謀反, 王命將士討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內南州郡.
文聖王	13年條	罷清海鎮, 徙其人於碧骨郡.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5年條	扶餘王從弟 ……及與萬

60) 李基白, 李基東, 1982, 韓國史 講座, 第1卷(古代編), 一潮閣, 서울, p.61.

61) 李丙薰, 金載元, 1959, 韓國史: 古代編, 乙酉文化社, 서울, p.316.

		餘人來投，王封爲王，安置掾那部。			口渡遼，……凡拔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夾谷·銀山·後黃十城，徙遼蓋巖三州戶口，入中國者七萬人。
山上王	21年條	漢平州人夏瑤，以百姓一千餘家來投，王納之，安置柵城			
西川王	11年條	肅慎來侵，屠害邊民，……王於是，遣達賈往伐之，達賈……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唐高宗總章	2年	唐移我人三萬八千三百戶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美川王	3年條	王卒兵三萬侵玄菟郡，虜獲八千人，移之平壤。	唐咸亨	3年	高侃與我餘衆戰于白水山破之，新羅遣兵救我，高侃擊克之，虜獲二千人。
	14年條	侵樂浪郡，虜獲男女二千餘口。	唐咸亨	4年	李謹行破我人於瓠瀟河，俘獲數千人。
	20年條	龐遣將軍張統，……俘其衆千餘家歸于棘城。	百濟本紀		
故國原王	12年條	燕王皝……虜男女五萬餘口，……毀丸都城而還。	溫祚王	8年條	靺鞨賊三千來圍慰禮城，……一戰克之，殺虜五百餘人。
故國壤王	2年條	遂陷遼東·玄菟，虜男女一萬口而還。	溫祚王	22年條	遇靺鞨賊，一戰破之，虜獲生口，分賜將士。
故國壤王	7年條	百濟……攻破都押城，虜二百人而歸。	溫祚王	27年條	(馬韓斗) 圓山·錦峴二城降，移其民於漢山之北
廣開土王	1年條	北伐契丹，虜男女五百，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溫祚王	43年條	南沃沮仇頗解等二十餘家至斧壤納款，王納之，安置漢山之西。
	4年條	王與百濟戰於湏水之上，……虜獲八千餘級。	肖古王	2年條	潛師襲破新羅西鄙二城，虜獲男女一千而還。
	9年條	燕王盛，……拔新城·南蘇二城，拓地七百餘里，徙五千餘戶而還。	古弼王	13年條	襲取樂浪邊民，茂聞之怒，王恐見侵討，還其民口。
長壽王	63年條	王帥兵三萬侵百濟，陷王所都漢城，殺其王扶餘慶，虜男女八千而歸。	近肖古王	24年條	高句麗王斯由，……分兵侵奪民戶，王遣太子以兵……獲五千餘級，其虜獲分賜將士。
文咨王	21年條	侵百濟陷加弗·圓山二城，虜獲男女一千餘口。	辰斯王	6年條	王命……伐高句麗，拔都押城，虜得二百人。
嬰陽王	18年條	襲石頭城虜男女三千而還	東城王	4年條	靺鞨襲破漢山城，虜三百餘戶以歸。
榮留王	5年條	搜括華人，以送之，數至萬餘。	武王	8年條	高句麗……襲石頭城，虜男女三千而歸。
寶臧王	4年條	延壽·惠真，帥其衆三萬六千八百人，請降，……帝簡靺薩已下官長三千五百人，遷之內地，……唐主，……先拔遼蓋二州戶	武王	28年條	拔新羅西鄙二城，虜男女三百餘口。

義慈王 2年條 攻新羅大耶城，……生獲男女一千餘人，分居國西州縣。

義慈王 20年條 定方以王及太子孝·王子泰·隆·演及大臣將士八十八人，百姓一萬二千八百七十人送京師。

위 記事들에서 獲, 虜獲, 抄掠, 奪掠, 掠取, 殺獲, 俘, 俘獲, 殺虜, 襲取, 侵掠, 侵奪, 虜得, 生得, 虜, 生得 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捕虜의 虜獲에 관한 것이며, 分居, 給, 安, 安置, 處, 徙, 遷, 移로 되어 있는 것은 安置, 그리고 還, 送, 招諭은 포로의 송환 혹은 本國으로 歸還케 한 조치와 관련된단다.

또, 위 記事들 외에도 三國史記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여 몇 개의 城을 빼앗았다는 內容의 記事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捕虜 虜獲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거의 예외없이 포로노획과 관련된 강제이동이 있었을 것이다.

人口移動의 影響은 移動人口의 數와 非移動人口 數의 相對的 規模에 달려 있다.⁶²⁾

三國時代 혹은 그 이전 韓半島의 人口數에 대해서는 推定者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三國時代 한반도의 총인구를 약 300만인^{63) 64)}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 총인구는 약 6,000만인으로서 300만인의 약 20배이므로 당시의 수십만~수만인의 移動을 現在의 관점에서는 수백인~수십만인의 규모로 확대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고구려 멸망시 寶臧王과 王子, 大臣들을 포함한 “20餘萬口”를 李勣이 唐나라로 보낸 史實은 다소의 과장을 감안하더라도, 古代 韓國의 인구

이동 중 가장 큰 규모로서, 그것이 미친 영향 또한 至大하였으리라 하는 것은 自明하다.

既述한 虜獲, 安置의 결과로서 鄉, 所, 部曲 등 特殊聚落의 形成이 있었다. 이 特殊聚落들은 朝鮮朝 初期까지 存續하였으며, 그 分布는 全國的이었다.

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406個所 중에서 217個所가 慶尙道地方에 分布한 部曲⁶⁵⁾은 대부분 노예적 지위에 있는 被征服民, 戰爭捕虜, 謀逆罪人의 遺族, 歸化民의 村落으로 構成⁶⁶⁾되어 있었으며, 鄉은 그 分布가 伽倻, 百濟地域에 집중되어 있을 뿐 性格上 部曲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所는 開城과 慶州를 중심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高麗朝의 金所, 銀所 등과 같이 特殊 生產業에 종사⁶⁷⁾했던 것으로서, 統一以後 新羅의 生産力이 증가함에 따라 部曲이 발전적으로 分化된 것으로 본다.

한편, 國外로 強制移動된 인구 중에서는 高句麗 계통이 숫적으로 가장 많아서, 唐太宗 貞觀 4年(A.D. 630)에서 玄宗 天寶 4年(A.D. 745)의 115년 간에 포로, 귀순자로서 唐에 거주하던 170여만인의 外族중에서 突厥, 鐵勒, 吐蕃, 黨項, 吐谷渾, 西域의 各國人과 함께 韓半島人으로서는 高句麗人⁶⁸⁾이 있었다.

이보다 먼저 母丘儉에 의해 捕虜로서 河南省 滎陽에 安置(A.D. 244)되었던 高句麗人들에 관한 晉書 卷五十六 江統傳의 “滎陽句麗, 本居遼東塞外, 正始中, 幽州刺史母丘儉, 伐其叛者, 徙其餘種, 始徙之時, 戶落百數, 子孫孳息, 今以千計”⁶⁹⁾라는 記事에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新羅 憲德王 이후 新羅海賊의 對馬島 및 日本沿岸 약탈, 安·史의 亂이후 黃海를 무대로 한 中國海賊의 新羅沿岸 약탈에 따라 많은

62) Powers, M.G., 1975, “The effect of education on population structure,” *Education and Population: Mutual Impacts*, p.258.

63) 朴奎祥, 1977, 人口問題와 人口政策, 한일문고, 서울, p.212.

64) 鄭順膺, 1976, 韓國人口問題와 對策, 文莊出版社, 서울, p.55.

65) 金龍德, 1955, “鄉, 所, 部曲攷”, 白樂濬博士華甲紀念國學論叢, pp.181~182.

66) 文炳鏞, 1973, 韓國의 村落: 農業의 生産方式과 發展, 進明文化社, 서울, p.36.

67)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3卷, 前揭書, p.143.

68) 傅樂成(辛勝夏譯), 1974, 中國通史, 時事英語社, 서울, p.493.

69) 方善柱, 1971,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第1號, p.19에서 재인용.

住民들이 붙잡혀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

즉, 崑崙人과 더불어 中國人의 「庸人」이 된 많은 新羅人⁷⁰⁾들의 존재가 그것이며, 이는 그 참상을 목격한 장보고가 淸海鎮을 설치하여 黃海, 南海를 무대로 한 貿易活動을 전개케 한 계기가 되었다.

3) 分散 및 기타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19年條에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神文王 5年條에는 “置南原小京, 徙諸州郡民戶分居之”라는 記事가 보인다. 이러한 徙民 즉 分散政策은 國家權力의 安定的유지를 위해서 中央의 영향력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徙民함으로써 地方勢力의 興起를 저지하고, 中央의 王權을 保護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진다.

특히 南原小京을 설치하고 諸州의 民戶를 徙民했다는 記事로부터는 새로이 獲得한 麗·濟의 村落에 新羅 本國人을 混合 居住케 함으로써 村落들을 血緣集團에서 地緣集團으로 전환케 하여 統一王朝의 對村落支配力을 增大시키는 정책⁷¹⁾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推知할 수 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미 강제이동되어 있던 被征服國家 貴族들의 세력(中原小京의 大伽倻 貴族, 南原小京의 高句麗 貴族 등)이 규합되는 것을 저지하며, 가능한 한 王京의 王族, 貴族, 豪民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五小京을 中心으로 徙民을 실시하였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외에 守廟, 守墓, 陵園의 管理, 遊食百姓의 歸鄉措置 등이 있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7年條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文武王 4年條의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또는 高句麗本紀 新大王 15年條의 “國相答夫卒……置守墓二十家”와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11年條 “驅遊食百姓歸農”의 예가 그것이다.

(4) 自由移動

Petersen에 따르면 自由移動에는 個人的 意志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동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험가나 理想鄉을 꿈꾸는 知識人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E.S. Lee는 人口移動에 있어서의 基盤的 요인을 出發地와 終着地에 관련된 肯定的, 否定的 要因, 移動過程에 개재된 장애, 人間的 要因으로 보고, 人間的 要因을 다시 年齡, 家族 構成員의 규모, 家族의 生活週期 段階 등 개인, 가족의 특성과 個人的 感受性, 知性, 知覺으로 나누었다.⁷²⁾ 이 중에서 個人的 感受性, 知性, 知覺에 의해 나머지 모든 要因이 여파되고 修正되므로 個人的 特性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Petersen과 Lee는 人口移動이란 個人的 特性에 의해서 選擇的으로 일어나는 行爲라고 보았다.

이러한 側面에서, 個人的 意志가 집단에 溶解되어 있던 古代 韓國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自由移動이 존재했었는가의 疑問이 제기된다. 그러나 어떠한 社會에서도 개인의 의지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구이동을 지배하는 保守的인 힘은 부적절한 環境에서의 도피욕구이며, 進就的인 힘은 보다 나은 生活環境을 찾아가려는 人間的 生物的 屬性이라고 하면 古代 韓國에도 自由移動이 존재했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自由移動, 특히 pioneer의 성격이 강한 초기의 자유이동의 意義는 이동에 참여하는 人口規模에 있지 않으며, 後續될 이동의 route를 선구적으로 개척하는데 있다.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知識의 傳播와 物質的 혹은 精神的 支援으로써 後續移動 希望者들의 새로운 세계에의 心理的 혹은 社會的 거리를 短縮시켜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個人 혹은 小規模의 自由移動이 성공적으로 累積될 때 移動이 社會의 集團行動 規範화된 大衆移動으로서 나타나게 되지만, 古代 韓國에서는 大衆移動의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주변의 환경이 만족할 만한 상태이면 移動欲求는 형성되지 않는다. 集團內의 개인들로 하여금 內部에 安住하려는 慣性을 相殺하고 外向的

70) 傅樂成(辛勝夏譯), 前掲書, p. 493.

71) 高承濟, 前掲書, pp. 85~86.

72) Kammeyer, op. cit., pp. 59~60.

離脫을 고무하는 계기가 주어질 때에만 自由移動은 表面的으로 活性化 된다.

그러한 계기로써 전형적인 것은 個人이 所屬되어 있던 社會의 붕괴이며, 그 계기의 強度는 地域的, 社會的 邊境性에 의해 조정되고, 個人의 특성에 따라 여과, 수정된 채로 知覺될 것이다. 統一新羅 末期에 中央의 閥族政治, 정권경탈, 統制力의 이완 등이 地方 庶民層으로 하여금 더욱 더 뜻을 海上, 海外에 두게하는 경향을 조장하였던 것은 著聞된 史實이다.

自由移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의 攪亂現象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自由移動이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客觀的, 外生的인 조건으로서 人口의 攪亂狀態가 前提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個人이 主觀的으로 知覺한 후 意思決定 過程을 거쳐 移動行爲로 表現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自由移動은 위와 같은 過程을 거쳐, 山地, 河川 등의 自然力과 外來人에 대한 原住民의 敵對感, 城柵 등 人爲的인 장벽에 의한 抵抗力이 가장 작은 線을 따라 흐르는 行爲로 表出된다.

新羅가 麗·濟와 겨누어 세력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慶州와 蔚山, 盈德 등의 鐵生産과, 풍부한 鐵을 이용한 武器, 農具의 改良으로 軍事力의 增強과 병행한 農業生産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⁷³⁾

또한 慶州는 주변산지가 天然的으로 하나의 內城을 이루었으며 斷層地形에 의해 東, 西, 南, 北, 北東, 南東 등 6方向의 交通要地를 占有하였고, 각 斷層線을 흐르는 하천들이 低平한 沖積地를 조성하여 농경중심의 경제권을 형성⁷⁴⁾하여 統一以前 新羅의 명실상부한 中核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 場所가 中核地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人口, 풍부한 資源, 집중된 政治權力, 교통로의 結節點, 非農民을 부양할 수 있는 土地⁷⁵⁾ 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 이전 慶州는 蔚山을 통한 物資의 集散과 자체가 지녔던 生産都市의 성격 때문에 지방과의 경제적인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慶州는 이미 전국의 교통중심권에서 벗어나 영토의 南東쪽에 자리잡은 사치성 소비도시가 되었다.

더우기 政治權力의 所在에 따르는 인구의 急増과 規模의 급팽창에 따라 이에 필요한 물품을 지방에서 모든 수단을 써서 받아 올려야 했기 때문에 경주와 각 지방간에 심한 不均衡 상태⁷⁶⁾가 초래되어 慶州의 中核地 기능이 붕괴되었다.

慶州의 中核地 기능 붕괴는 統一新羅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慶州에서의 地理的, 社會的 거리가 먼 邊境地方에는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禮成江 以北의 邊境地域은 원래 軍事的인 特別地區로서, 중앙정부나 귀족에 의한 가혹한 착취를 면할 수 있었으며, 南쪽 지방에서 착취에 견디지 못해 流民들이 발생할 경우에 大量으로 이 지역에 移住하여 와서 활발히 開發을 추진⁷⁷⁾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自由移動은 移動單位가 대개 個人, 家族, 혹은 小集團이고, 散發的인 것으로서, 史書를 통해서 그 배경만을 읽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記事는 거의 發見할 수 없다.

古代社會에서의 個人의 생활은 血緣, 地緣에 의한 공동체에 依存, 埋沒되어 있어서 근래와 같은 규모의 個人, 혹은 非血緣 집단에 의한 이동의 중요성이 不在⁷⁸⁾하기 때문이다.

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는 自由移動의 記事는 高句麗本紀 烽上王 9年條 “王發國內男女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因之以流亡”, 百濟本紀 阿莘王 8年條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衰滅” 등이나 既述한 強要移動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내에 한정된 도피성의 保守的인 自由移動과는 달리 보다 進就的인 의미

73) 國史編纂委員會編, 1981, 韓國史, 第6卷(高麗: 貴族社會의 文化), pp. 277~278.

74) 李鳳秀, 1970, “新羅 花朗의 遨遊山水의 地理的 考察”, 常虛劉錫昶博士古稀紀念論文集, p. 158.

75) 任德淳, 1973, 政治地理學原論, 一志社, 서울, p. 249.

76)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3卷, 前揭書, p. 527.

77)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史, 第3卷, 前揭書, p. 480.

78) Thompson, W.S., Lewis, D.T., 1965, *Population Problems*(5th ed.) Tata McGraw-Hill, Bombay, p. 479.

의 自由移動이 日本과 中國의 沿岸地域을 향해 이루어졌다.

國境을 넘는 自由移動은 한 인간의 일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國境을 넘는 이동의 대부분에 있어서 移動者들은 그들의 國籍, 母國語, 文化的 遺産, 慣習, 親戚, 親舊, 職業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인 만큼 개인에게 주는 충격이 지대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自由移動의 基底로서 心理的, 社會的 거리의 意義가 부각된다. 인간은 本能的으로 그들의 既存 生活樣式에 대해 가능한 한 小幅의 調整을 요구하는 地域으로 이동하려 하기 때문이다.

個人, 혹은 集團의 知覺, 信念에 의해 修正된 心理的 거리⁷⁹⁾는 自由移動에 큰 영향을 준다. 즉, 古代 韓國인이 이동해간 日本과 中國의 특정 地域들은 당시 한반도인들의 文化的, 自然的 경험과 空間에 대한 行爲, 空間關係에 대한 視覺的 知覺을 반영하는 mental map⁸⁰⁾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환언하면, 당시 한반도인들의 mental map에서는 日本이나 中國에 대한 心理的, 社會的 거리가 韓半島內의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가까웠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mental map에서의 日本, 中國과의 心理的, 社會的 거리를 示唆해 주는 것은, 自由移動에 관한 것은 아니나, 三國史記 新羅本紀 伐休尼師 今 10年條 “倭人大饑, 來求食者千餘人”, 憲德王 8年條 “年荒民飢, 抵浙東求食者, 一百七十人”이라는 記事이다.

古代 한반도인의 海外로의 自由移動은 宗教, 學問, 藝術의 習得, 傳播와 私貿易을 중심으로

한 海上活動으로 나타나고 있다.

前者의 例로서는 道教, 佛敎를 배우기 위하여 唐에 왕래한 求法僧⁸¹⁾, 주로 百濟人이 日本에 漢學, 漢文, 儒敎, 佛敎, 醫學, 易學, 藥學, 音樂, 天文地理 學者와 造寺工, 瓦工, 造佛工, 露盤工, 畫工, 樂人, 造園工 등 藝術家, 技術者로서 많이 건너가서 日本文化 발전에 기여⁸²⁾한 사실이 있다.

특히, 百濟와 日本間의 人的 교류는 매우 활발하여 때로는 萬으로 헤아리는 人衆이 집단적으로 日本의 進出⁸³⁾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완전한 自由移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既述한 強要移動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統一新羅人의 唐으로의 이동도 활발하여 江蘇省 淮安縣, 漣水縣, 山東省 文登縣 등 황해 연안을 중심으로 新羅人의 集團居留地인 新羅坊이 형성되어 있었다.

新羅坊에는 勾當新羅所의 押衛(大使)로서 新羅人이 被任되었으며, 登州와 같은 곳에는 都督府에 신라인 관리로서 長使가 있었고, 그 밖에 신라에는 당시 對中要衝인 金州와 같은 곳에는 本國과 移住民(登州)과의 연락을 맡은 知後官⁸⁴⁾이라는 官員이 있었다.

新羅坊의 존재는 활발한 海上活動이 전개되어야 하며, 遼西, 遼東을 점령하여 渤海灣을 중심으로 中國의 황해연안 地域을 제패했던 百濟와 高句麗에서 海上을 통한 인구이동도 추정할 수가 있다.

百濟는 특히 對中 海上活動이 활발하여 後漢 이후 魏晉에 이르기까지 中國 측 史書에 朝獻, 貢獻, 至, 來로 나타나는 빈번한 무역왕래⁸⁵⁾와 商業的, 軍事的인 가치를 지닌 海岸植民地인 晋平郡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79) Fielding, G.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Harper & Row, N.Y., p. 12.

80) Clarke, J.I., 1972, "Geographical influence upon the size, distribution, and the growth of human populations," *The Structure of Human Populations*, p. 29.

81) 金奎皓, 1984, "在唐 異民族 活動考", 素軒南都永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p. 726.

82) 金廷鶴, 1981, "古代的 韓日關係: 農耕民族 日本征服國家論", 韓國의 古代文化와 隣接文化와의 關係, pp. 103~104.

83) 金庠基, 1967,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白山學報, 第3號, p. 141.

84) 金庠基, 1960, "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 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p. 60.

85) 鄭寅普, 1977, "百濟의 海上發展과 遼西爭霸: 古代 對外關係史 認識에 대한 修正論의 焦點", 自由, 第10卷, 第9號, p. 67.

自由移動은 직접적인 동기에 있어서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自由移動이란 商業的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新羅坊 居留民의 대부분이 商人⁸⁶⁾이었던 것은 統一新羅 시대의 自由移動이 활발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론 통일 이후의 산업 발달과 개인적 활동의 旺盛 및 唐의 증엄 이후 節度使의 跋扈로 내부가 혼란되어 외국인에 대한 取締가 疎漏⁸⁷⁾했던 관계 등에 힘입은 바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古代 한국인의 外國으로의 자유이동은 百濟→日本, 統一新羅→中國의 方向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IV. 結 論

人類의 역사는 인구이동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人間의 가장 독특한 특성 중의 하나가 移動性이라는 점, 인구이동은 해당 지역에 단순한 人口增減 이상의 人文地理的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인구이동이라는 行爲는 매우 복잡한 個人의—社會的, 自然의—人文的 環境의 所産이므로 法則化나, 一般化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우기 統一新羅까지의 古代 한국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에는 定量的 分析의 곤란이라는 문제점이 추가된다. 그리하여 包括的인 범주로서 照明한 類型化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Petersen의 typology를 援用하여 三國史記에 나타난 人口移動의 事例들을 原因과 形態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類型別 인구이동의 量과 方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山地, 海洋, 河川, 海岸 등 自然地理的 환경요소들과의 構造的 關連을 분석하였다.

交通·通信의 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古代로 소급될수록 자연지리적 환경요소가 인구이동에 미친 영향은 검증한다.

山脈, 高原 등의 山地는 分離機能으로써, 自然力에 의한 저항이 가장 작은 線을 따라 흐르

러는 경향이 큰 고대 인구이동의 量과 方向을 현저히 제한했다. 이는 釜山 東三洞과 咸北의 羅南, 茂山에서 발견된 先史遺物의 유사성, 新羅가 麗·濟에 비해서, 嶺東, 咸鏡道 地方이 平安道 地方에 비해서 鐵器文化 受容이 늦었던 점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山地가 內包하고 있는 嶺, 溪谷, 海岸과의 사이에 있는 低地帶 등은 山地의 人口移動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新羅의 嶺東地方 海岸通路를 통한 영토확장, 明刀錢의 出土地 분포, 楸哥嶺構造谷을 이용한 靺鞨族의 百濟 침공 등의 예가 있다.

海洋은 季節風, 섬, 海流, 海峽 등으로써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었다. 季節風을 이용한 新羅의 對中國貿易, 日本으로의 이동에 도움을 준 東韓暖流, 海峽에 위치한 廟戶諸島, 對馬島, 壹岐島의 역할 등 범선항해 시대에 해양은 인구이동에 탁월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인구의 분포는 海岸에 유인되며, 內陸으로의 進出通路는 河川이다. 先史時代의 聚落分布, 古代 주요도시들이 河川沿岸과 海岸에 집중된 立地의 공통점은 河川, 海岸이 인구이동에 대해 가지는 誘引價가 慣性的으로 作用한 결과로 보여진다.

Petersen의 typology로써 보면, 古代 한국에는 大衆移動을 제외한 原始的, 強要, 強制, 自由移動 등 4개 유형의 인구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原始的의 移動은 자연의 힘에 대처할 능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農業社會이던 古代 한반도인들에게 旱魃, 洪水, 颱風(暴風), 우박, 濃霧, 서리, 눈 등 氣候(氣象)의 변화는 生態的 壓力으로써 때로는 海外로까지의 이동을 야기하였다.

古朝鮮 이후 諸國의 형성, 발달, 멸망과정에서 발생한 政治的, 社會的 변동은 많은 인구가 이동하도록 강요하였다. 朝鮮相 歷谿卿의 辰國으로의 이동, 麗·濟의 建國說話, 古朝鮮 遺民의 新羅로의 移動 및 三國史記의 많은 史例 등이 있다.

強制移動은 個人的 意志가 완전히 배제된 捕虜의 虜獲과 安置, 充戶, 分散 등의 형태로 이

86) 劉教聖, 1965, “韓國 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系 II (政治·經濟史: 下), p. 1019.

87) 金蔭基, 1948, 東方文化交流史論攷, 韓國文化叢書, 第8輯, 乙酉文化社, 서울, pp. 15~16.

루어졌다. 捕虜의 虜獲은 人口와 領域을 확보하려는 古代 征服戰爭의 所産이며, 充戶는 統一新羅 末期 禮成江 이북의 開拓, 高句麗 長壽王의 平壤 遷都, 모든 築城徙民이 해당된다. 捕虜, 亡國遺民, 叛逆集團, 歸化民을 대상으로 한 安置는 鄉, 所, 部曲 등 特殊聚落의 기원을 이룬다. 統一 이후 新羅가 中央의 貴族, 豪民들을 地方으로 分散시킨 정책은 國家體制의 안정을 기도한 것이며, 이외에 守廟, 守墓, 陵園管理, 遊食百姓의 歸鄉措置 등이 있었다. 中國流亡民을 空地에 安置시킨 古朝鮮과 樂浪漢人을 虜獲했던 辰韓 이래 강제이동은 古代 韓半島를 둘러싼 歷史過程의 핵심적 요소였다.

自由移動에는 個人的 意志가 절대적인 요소로서, 그 意義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속될 移動者들에게 情報, 精神的 物質的 支援을 제공

하는데 있다.

共同體에 매몰되어 있던 古代人들에게 소속집단에서 이탈, 이동케 하는 가장 중요한 外生的 계기는 사회체제의 붕괴이며, 그 強度는 個人的 知覺, 信念에 의해 수정된다. 統一新羅 末期 社會體制의 붕괴는 人口의 攪亂現象을 일으켜 多數의 自由移動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慶州의 政治地理學的 觀點에서의 취약성에 의해 조장되었다.

海上을 통한 海外로의 이동은 당시 韓半島人들의 mental map 내에서의 心理的, 社會的 거리의 知覺에 관련되며, 百濟→日本, 統一新羅→中國 方向이 탁월하였고 藝術, 學術, 宗教, 技術의 傳來와 交易 發達의 交互的 作用하에 이루어졌다.

Population Migrations of Ancient Korea

Sang-Joon Nam*

Abstract

Human history has been dotted with migrations and one of the most unique characteristics of mankind is mobility. And migrations caused human-geographical changes beyond the simple population changes in the related areas.

In this research, cases of migrations shown in Samguksagi are grouped according to their causes, forms, and their effects. In addition, their structural relations with physical-geographical elements which played important parts in determining the quantities, and the directions of migrations are analyzed.

Mountain areas such as high mountains and plateaus have markedly limited the quantities and the directions of ancient migrations which had strong tendencies to flow along with the line that had the least resistance by the environmental forces, and this fact is proved by the similarities among the prehistoric remains found in Dongsamdong of Busan and Nanam, Musan of Hamgyeongbukdo, and by that Sinra fell behind in accepting the Iron Age Civilization in comparison with Goguryeo, Baekje, and Yeongdong, Hamgyeongdo areas with Pyeongando area.

Nevertheless, the passes and the valleys contained in mountain area, and the lowlands which lie between the mountain and the coast have lightened the restrictions of mountain areas upon migrations. Territorial extension of Sinra

throughcoastal passages, the distribution of excavation areas of Myeongdojeon, and the invasions of Malgal tribe upon Baekje by taking advantage of Chugaryeong tectonic valley are good examples.

By means of monsoon, islands, ocean currents, and straits, the seas have exerted influences on migrations.

Monsoon which aided Sinra in trading with China, the Donghan current which helped people to move to Japan, and the Myoho islands, the Daemado island, and the Ilgi island situated in the straits must have remarkably contributed to the migrations of sailboat navigation period.

Population distribution was led to the coast, and rivers functioned as passages in penetrating into inland. It seems that the settlement distribution of prehistoric age and the commonness of location of the ancient major settlements centralized on the riversides and along the coast are results of the migration-inducement values of rivers and coasts that acted as inertia.

Ancient Korea had four types of migration of W. Petersen's typology.

Primitive migration was due to the lack of capacity to cope with the forces of nature. Various forms of changes in the climate (weather) often compelled with ecological pressures the inhabitants of ancient Korean Peninsula whose main industry was agriculture to migrate.

Political and social fluctuations which occurred in the courses of formation, development, and downfall of nations since Gojoseon impelled a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32, pp. 39-57, 1985.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multitude of population to drift. Migration of Yeoggyeong, and the crowds who followed him to Jinguk, national foundation tales of Goguryeo and Baekje, and migrations of the remnants of Gojoseon to Sinra were examples.

Forced migration took the form of holding captives, forcing people to migrate to certain areas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coercing captives, criminals, and traitors into migrating, and dispersion. This type of migration had examples such as exploitation of the north of Yeseong river at the later half of the Unified Sinra, transfer of the capital to Pyeongyang by King Jangsu, and all kinds of colonizations after fortifications.

Forced migration of captives, rebel groups, naturalized people caused the origin of Hyang, So, and Bugok. The policy of dispersion of aristocrats and powerful families of capital into provinces was executed with the intention of stabilizing the state system, in addition we can place in this category, guards over king's shrines, looking after the tombs of the nobles, and et cetera.

Forced migration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process of history of ancient Korean Peninsula.

An absolute factor of free migration is the individual's will, and the significance of free migration lie in the faculty of supplying the following migrants with informations, mental and material sup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ogenous motives of free migration was a breakdown of the structure of their societies, and the motives was perceived with the intensity modifi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erceptions and beliefs.

The breakdown of the social fabric at the later half of the Unified Sinra brought about a phenomenon of population turbulence, therefore formed a background of most of the free migration, and this was furthered by the vulnerability of Gyeongju, from a politico-geographical point of view.

Free migrations across the seas were prominent from Baekje to Japan, Unified Sinra to China, in connection with psychological distance on mental map of the people of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and with social distance. And the free migrations were occurred under the interaction between introduction of art, science, relig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trade.